



디스를 쳐다 본 뒤 말했다.
“응. 수고했어. 한 잔은 색시가 마셔~”

■ 사이좋게 한 잔

한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효도관광을 가게 됐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 본 할아버지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 보다 잠이 들었다. 잠시 후 깨어 보니 사람들이 모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할멈 저 커피 어디서 시켜?”

“커피요? 저 아가씨들이 그냥 먹으라고 줍니다.”

그 얘기에 화가 난 할아버지가 스튜어디스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만 빼놓고 커피를 둘려!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런...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드릴게요.”

“당연하지! 그럼 나 커피 두 잔 타다 줘!”

잠시 후 스튜어디스가 커피 두 잔을 할아버지께 가져갔다.

“할아버지, 여기 커피 두 잔 있습니다. 화 푸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스튜어

디스를 쳐다 본 뒤 말했다.
“주인장 저 개 좀 삽시다. 가격은 얼마면 되겠소?”

“글쎄요?”

“30만 원을 줄 테니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개를 팔죠.”

개를 산 골동품 장사는 이제 밥그릇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주인장, 이왕이면 그 개 밥그릇까지 끼워서 삽시다.”

그러자 주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건 안됩니다! 그 밥그릇 때문에 개를 백 마리도 더 팔았는데요.”

■ 이혼의 이유

어느 부인이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저는 남편과 멋진 봄날에 결혼을 했었답니다.”

“아니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아! 우리는 2년 만에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답니다.”

“그게 아니라 이혼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주시

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 그거요? 간단해요. 남편과는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 횡당한 판매

한 신입사원이 백화점 스포츠 용품 코너에 배치됐다.

“여기... 특수용품도 취급하나요?”

그러자 남자가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당연합니다. 저희 A/S도 확실하게 해 드립니다!”

가게를 둘러보던 손님이 다시 물었다.

“그럼... 낙하산도 판매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상품을 본 손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물었다.

“이거... 스카이 다이빙 때 사용할 건데,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곧장 가져 오십시오. 즉시 A/S 해 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e-스타



보습효과 짱! 알로에 스키н 만드는법

찬비랍 솔솔~ 겨울이 왔다.

아직은 애교 수준에 불과한 초겨울 찬비랍이지만 곧 있으면 매서운 칼바람에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얼굴도 시려질 텐데.

겨울이 오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보습'이다. 겨울에 맞춰 '보습효과 짱! 알로에 스키н 만드는법'이라는 동영상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네티즌의 클릭률을 이끌어내고 있다.

생각보다 스키н 만드는 재료는 간단하다. 알로에 100g, 청주 100ml, 정제수 100ml(생수나 증류수 사용 가능). 이 세가지만 있으면 알로에 스키н을 만들 수 있다.

싱싱한 알로에는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빙에 담아 둔다. 미백 효과를 더하고 싶다면 새콤달콤한 레몬도 곁들여 준비해둔다.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다. 깨끗이 씻어 놓은 페트병에 썰어놓은 알로에와 레몬을 담아준다. 입구가 좁은 병에 알로에와 레몬을 넣기 위해서 자체재작 깔때기(+)를 등장한다. 깔때기는 페트병 입구부분을 자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알로에와 레몬이 담긴 병에 청주와 정제수를 조심조심 부어주면 작업이 모두 완료된다.

단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청주와 정제수를 부은 뒤 병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3일간 보관해둔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뒤 스키н 병이나 스프레이에 유플러스팅(+)을 하면 알로에에 레몬汁이 잘 섞여 있다.

그러나 깔때기는 것은 깔집에 들어있을 때 두려운 법으로 막상 깔을 떼들자 백도 오히려 편해졌다. 무조건 만파불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깔때기는 것은 깔집에 들어있을 때 두려운 법으로 막상 깔을 떼들자 백도 오히려 편해졌다. 무조건 만파불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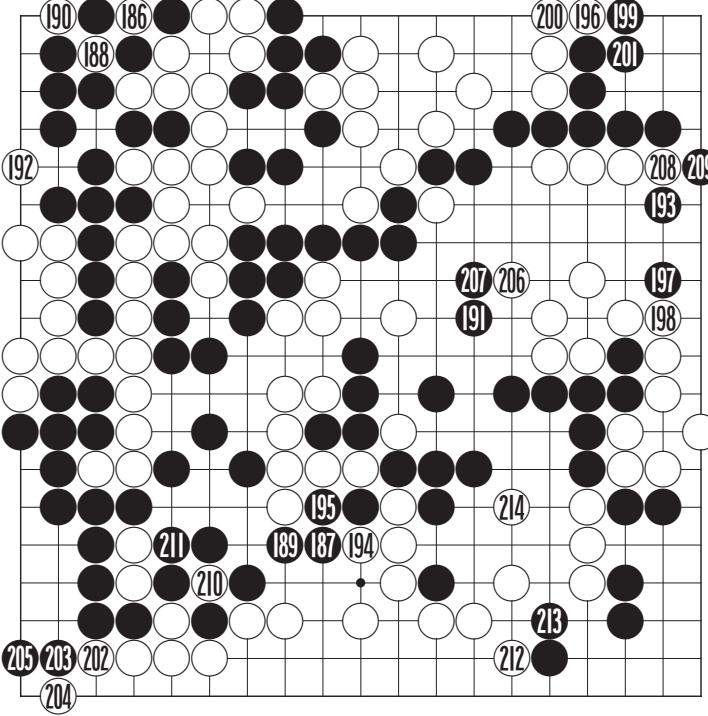
혹은 187이 유일한 팩감으로 백도 각오가 된 터라 이에 불청하고 순식간에 백 192까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스스로를 벤 칼

학생부 결승전 9보(186~214)

白 대인권 黑 양승하
(인천광역시) (경기도)



백 186으로 따내 본격적인 천지대쾌가 시작되었다. 이 패는 흑에게도 위험부담이 큰 패로 패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설험리 결행하기 힘든 승부패다. 때문에 진작부터 흑이 노리고 있었으나 위험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깔때기는 것은 깔집에 들어있을 때 두려운 법으로 막상 깔을 떼들자 백도 오히려 편해졌다. 무조건 만파불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깔때기는 것은 깔집에 들어있을 때 두려운 법으로 막상 깔을 떼들자 백도 오히려 편해졌다. 무조건 만파불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혹은 187이 유일한 팩감으로 백도 각오가 된 터라 이에 불청하고 순식간에 백 192까

지 좌변 흑 대마와 중앙의 백 대마에 대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대교환으로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 결론은 흑의 대실패였다. 좌상귀를 잡은 흑의 이득은 48집 가량인데 비해 중앙을 잡은 흑의 실리는 40집을 넘지 못한다. 이 바둑은 백이 8집반을 이겼으니 이 교환으로 승부가 나뉘린 것이다.

페를 하지 않고 위험만 했더라면 유리한 바둑을 헛칼질을 해대어 스스로를 벤 끝이다. 이후의 수순은 총보로 미룬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SISAK 웨스틴 엘도라도 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98>

What are you thinking?

뭘 생각하고 있는 거니?

A : What are you thinking?

B : I'm trying to decided if I should call Mary?

A : Mary Davis?

B : Yeah, the one I met last week.

A : 뭘 생각하고 있는 거니?

B : 메리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하려는 참이야.

A : 메리 데이비스?

B : 그래, 지난 주 내가 만났던 사람 말이야.

* be trying to ~ = 막 ~ 하려는 참이다

* call = 연락을 취하다

* decide : (~을) 결정하다

오하요우 니흔고 <1198>

このキムチ、味がちょっと薄味(うすあじ)ですね。

이 김치, 맛이 좀 싱겁군요

A : このキムチ、味がちょっと薄味(うすあじ)ですね。

B : あれ、辛(から)いのに味(あじ)が分かるんですか。

A :ええ,私ももう韓國に7年も暮(くら)しているんですよ。

これくらい는...

B :へえ、これはたまげましたね。

A : 이 김치, 맛이 좀 싱겁군요.

B : 아니? 매운데 맛을 알 수 있습니까?

A : 예, 저도 벌써 한국에 7년이나 살았어요. 이 정도는...

B : 와! 이거 놀랍군요.

薄味(うすあじ) : 맛이 싱겁다

辛(から)이 : 맵다

たまげ : 놀라다

니하오 쟁구워 <275>

这里到海边远不远?

여기에서 해변까지 멀니까?

A : 这里到海边远不远?

zhèlǐ dào hǎibìan yuǎn bù rán

적이 떠오르거나 멀지 않거나 차려야 한다.

B : 不远, 过了那条街就到了。

bù yuǎn guò le nà tiáo jiē jiù dào le

부른다니 멀지 않으니 차례에 걸친다니 차려야 한다.

A: 谢谢。

xìxie

× 대사례

B: 不客气。

bú kèqi

부거쳐

A: 여기에서 해변까지 멀니까?

B: 안 떠나다. 저 집을 전년면 바로 나옵니다.

A: 고맙습니다.

B: 몇몇 좋은 묵을까요.

条 [tiáo] 한 칠래의

街 [jiē] 끝

한자 이야기 <915>

一傅衆咻(일부증후)

한 일, 스승 부, 무리 중, 떠들 흐

일부증후(一傅衆咻)는 한명의 스승이 가르치는데 여러 사람이 떠드는 뜻으로, 학습 환경이 좋지 않거나, 환경의 영향으로 일에 성과가 없음을 비유한다.

맹자는 송(宋)나라에서 '인정(仁政)'을 실행한다는 말을 듣고 송나라에 찾아갔다. 그러나 송나라 대부 대불승(戴不勝)은 설거주(薛居州)라는 송나라 관리에게 강왕(康王)의 보필을 맡겼다. 이에 맹자는 불편한 심사를 갖고 대불승과 다음 같은 대화를 하였다.

“초(楚)나라 대부가 자기 아들에게 제(齊)나라 말을 배우게 하려는데, 제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초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제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쳐야겠지요.” “그런데 제나라 사람 하나를 스승 삼았더라도, 모든 초나라 사람이 초나라 말을 지껄이면, 매일 매를 때리면서 그에게 제나라 말을 하라고 강요하더라도 배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를 끌어다가 몇 년 동안 제나라의 변화한 길거리에 놓아두고, 매를 때리면서 초나라 말을 배우게 한다고 할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는 설거주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인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孟子, 藤文公下)